

# 외국스님 법문에서 강부자씨 신행담까지...



부산불교실업인회

## 불심으로 기업·지역활동 17년

연일 일간지 주요 면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면 경제가 화두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경제대통령이 우선이었으며, 기업인을 대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불황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격랑 앞에서도 더욱 고요하게 정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영광도서 대표 회원들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이하 실업인회)는 3월 26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제17주년 창립 법회(사진)를 열었다.



### 전회원이 신심모아 '묘광선원' 건립 108명상·사찰순례등 신행 원동력

60여명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윤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수레가 외발로 굴러갈 수 없듯 지난 17년 동안 전 회원이 신심과 정성을 모아 큰 불사를 이룩했다"며 "지금 여러 분이 편히 앉아 계시는 회관과 법당을 우리의 힘으로 건립한 것이기에 여러분은 이 불사공덕으로 세계생생 부처님과 같은 연을 맺은 것"이라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사찰에서 봉행하는 순례법회 이외의 행사는 묘광선원 법당에서 봉행할 계획이며, 법회 공간이 없는 신행단체의 법회공간이나 각종 문화 강좌 개최 등 열린 공간으로 화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특별히 60여명 회원들이 지도법사의 가르침에 따라 저녁을

발우공양으로 체험했다. 공양이 끝난 후 박광서 교수(서강대)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우리 불교는 미래 지향적 종교"라 전제한 박광서 교수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에 불교가 동양으로 삼아 격랑 앞에서도 더욱 고요하게 정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영광도서 대표 회원들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이하 실업인회)는 3월 26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제17주년 창립 법회(사진)를 열었다.

이제 불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불사를 해야 한다. 종교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 부산 부처님마을, 4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특별법회 봉행



부처님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일조 무심 자은 스님, 강부자 송석구씨.

빠속 깊은 곳까지 스며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들이 만난 부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푸른 논이 출가 수행자로부터 한국불교를 만나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바뀐 계기를 직접 들어 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부산 부처님마을(주지 효법)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한국스님과 불자 유명인 초청대법회'를 부산 해운대 부처님마을에서 봉행한다.

"외국인스님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 한국불교의 지력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치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불교를 모든 문화 속에서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지요. 먼저 이번 법회는 대중들에게 한국 문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회를 개최하는 주지 효

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 일정 및 초청 순서는 4월 1일 일조 스님, 8일 무심 스님, 15일 자은 스님, 22일 불자 연예인 강부자씨, 29일 국제신문 송석구 사장이다. 일조 스님은 1999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순천 송광사 강원과 울원에서 정진 후 현재 싱가포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국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심 스님은 송산 스님을

은사스님으로 출가하여 화계사 서울 국제선원의 수석 지도법사 및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를 역임하며 참선 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화제를 끌고 온 책 <공부하다 죽어라>의 저자 중한명이다. 자은 스님은 엘버타대학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생화학 박사를 취득한 수재다. 공주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공주마곡사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

투시지만 법신(法身)은 하나입니다. 눈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그 본질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진리며 우리에게 색다른 나 잡다는 진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스님들을 초청하여 봉행하는 법회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외국인 스님들을 자주 초청하여 법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고 편견 없이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회는 초청받아 오는 스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지 효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외국인 스님 수행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때 실무 책임자를 맡으며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수행 지침 및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주인공 중 하나이다. 그 만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수행자들을 관심과 격려로 응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고심해 온 것이다.

"대중들에게는 한국불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외국인스님들에게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하며 부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법회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법문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51)704-0332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 "인재개발을 위한 첫 도약"

### 부산불교신도회 불교대학 입학식

"200만 부산불자들의 교육과 신행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부산인재개발원(원장 이옥태)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기 로터스(연회) 불교대학 입학식을 3월 27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봉행했다. 로터스(연회) 불교대학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불교인재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재불사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입학식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병수 회장은 "부산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의 중추로 21세기 녹야원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모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산인재개발원은 불자 CEO를 위한 전문 강좌와 수행을 겸비한 교육 수련 및 전문 강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 茶香 피어오르는 제주도 약천사

### 4월 8일, 오백나한 헌공다례 봉행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정을 거듭한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 (사)탐라차문화원(원장 이연정)이 '약천사 헌공다례회'를 결성하고 처음으로 '오백나한 헌공다례'를 4월 8일 오후 2시 봉행한다. 오랫동안 약천사에서 재배해온 차나무의 수확물을 부처님께 첫 공양으로 준비해 올려 더욱 의미가 깊다.

2000년부터 약천사 헌공다례회(회장 이연정)를 새롭게 발족해 이번 헌공다례를

마련했다.

약천사 부주지 성원 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삼짱날이 되면 나한님들에게 차 공양을 올렸는데 그 전통을 이어 약천사도 금년 삼짱날부터 오백나한 헌공다례를 하기로 했다"며 "다례 예식을 통해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신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약천사는 4월 8일 오전 10시 삼성각 나한존자복장 불사를 회향한다. (064)738-5000 **하성미 기자**

탐라차문화원을 개원했다. (사)탐라차문화원은 차 문화가 부족한 제주도에 불꽃처럼 피어난 새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익혀온 차 수행방법 및 행다를 통해 많은 다도 사범들을 배출시켜 왔다. 올해 (사)탐라차문화원은 교육생과 사범들이 모여 부처님께 여법한 차 공양을 올리자는 취지로 약천사 헌공다례회(회장 이연정)를 새롭게 발족해 이번 헌공다례를

##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진산식

### 4월 3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마당

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는 4월 3일 오전 10시 성보박물관 앞에서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주지로 취임하는 정여 스님은 3월 6일 범어사 주지 후보에 선출되고 19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정여 스님은 1975년 7월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3월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쌍계사 금당선원 화대·입승, 범어사 금어선원 재무 소임, 여여정사,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통불교 대의 실현하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대원장 지암)가 3월 27일 부산 수덕사에서 임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26개 회원 중 20여 회원이 참석하여 중흥회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확정했다. 대원장 지암 스님(해동불교임제종)은 인사말에서 "분산된 한



부산 수덕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임시총회.

국불교 종단을 합리적으로 엮어 내 통불교의 대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부총재 해안 스님(대한불교무량종)은 "각 종단의 지도자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전된 지향점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061)644-7273

#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중지를 밝히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파와 불자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계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서는 돌아가신 후 영구우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계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 동참방법 : 신축불사에 동참을 원하시는분은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 1588-1936 / 080-449-950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 건축 개요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 11, 12번지
- ▶ 대지면적 : 1260㎡(382평) ▶ 총면적 : 11,322㎡(3,423평)
-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